

2016 한국바로알리기 민간단체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사 업 명	재일동포 인생의 이야기 수집 사업
사업기관	코리아 NGO 센터
사업책임자	곽진웅
사업기간	동의서제출일로부터 ~ 2016.11.30
사 업 비	금 4,000,000 원(금사백만원정)
사업진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일동포들의 생애사에서 민족교육 관련 관계자 인터뷰 수집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재일동포 생애사 수집 인터뷰를 진행 중 ※ 본래 사업계획서에서는 생애연구 중 민족교육에 현재 몸담고 있는 민족교사와 민족교육 관련 경험자, 민족학급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 대상을 한정하여 인터뷰 조사를 진행 중 ■ 현재 인터뷰 진행 상황 및 간략한 개요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여): 35 세. 초등학교부터 오사카 이쿠노쿠 거주. 지역의 특성 상 친구들은 재일코리아인이 다수. 대학 시절에 오사카 내 공립학교의 민족학급에 대해 논문 작성 후 현재 민족강사로서 히가시 오사카 지역에서 근무. 현재는 차세대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위한 교재의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작년 일본의 공립학교에서 근무가 가능한 교사자격증 취득. · 김○○○(여): 33 세. 초등학교 교사로서 외국인 교육 담당.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름도 일본식 이름인 통명을 사용하며, 일본인들과 어울리며 살아옴. 어른이 된 후 민단 청년부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 초급과정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음. 앞으로 자신의 이러한 경험이 민족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 · 문○○(남): 40 대. 대학시절 재일동포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한국사회와 역사에 관심이 생겼으며 공부하기 시작. 현재 자녀를 일본공립학교의 민족학급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이자 학부모회의 회장을 맡고 있음. 재일동포는 일본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은 꼭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강○○(남): 33 세. 오사카 이쿠노구에서 출생하여 줄 곧 이쿠노구에서 성장. 이쿠노구내 한 공립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중

	<p>5학년 3학기 때에 교내 민족학급 창설. 1기 졸업생으로서 민족악기 등에 큰 흥미를 보임. 이후 부모의 영향으로 조총련계의 동포 학생행사에 참가하였으나 악기 이외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음. 별다른 저항 없이 본명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재직 중인 히라노구(이쿠노구와 인접해 있음)의 공립 초등학교에서도 본명을 사용 중. 취미생활로 사물놀이 등의 전통악기를 계속하고 있음. 민족강사의 요청으로 교내 혹은 교구 내의 타교에서 사물놀이를 가르치기도 함. 재일동포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 사회를 변화시켜야한다는 가치관 하에 일본 아이들에게 공생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남): 30 세. 이쿠노구와 더불어 재일동포 집중 거주지역인 히가시나리구에서 출생하여 줄곧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음.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시절 모두 민족교육 경험이 없었으며, 오히려 재일 코리안들은 학교 내에서 이지메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기억. 어린시절을 재일 코리안임을 숨기지는 않았지만, 스스로도 재일 코리안에 대한 혐오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회상. 성인이 되고 민족 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조총련계 민족학교를 견학하게 되었고, 자유롭게 우리말을 구사하는 아이들을 보고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됨. 현재는 민족강사로 재직하면서 공립학교 내에서 가능한 민족교육을 고민하고 있음. · 이○○(여): 25 세. 오사카 니시나리에서 출생 및 성장. 니시나리 구 내의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그 곳에서 민족학급을 경험함.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재일코리안의 재적 수가 많았고, 동포 교원들은 물론 일본인 교원들도 민족교육에 관심이 많았음. 현재는 오사카 시내 한국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음. 현재 업무를 위해 한국어를 학습 중이며, 사물놀이 등을 취미로 하고 있음. · 류○○○(여): 43 세. 오사카 북부에서 출생. 성장과정 중에 민족교육의 경험은 거의 없음. 이후 대학에 들어가 교내 재일 코리안 단체에서 재일 코리안의 역사 및 한국의 현대사 등에 대하여 학습. 이후 사회인이 되어서도 재일코리안 청년 단체에서 활동. 현재는 히가시나리 구내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으며, 두 딸 모두 민족학급에서 활동 중. 민족학급의 경험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앞으로의 자녀들이 다양성을 갖고 살아가는 데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함. · 안○○(여): 23 세. 오사카 이쿠노구에서 출생하여 줄곧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음. 이쿠노구 내의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6 년 간 민족학급에서 활동함. 중 고등학교는 이쿠노구 밖의 사립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크게 민족교육과 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민족학급에서의 경험이 계기가 되어 대학에 진학하여 교내 재일 코리안 단체에서 활동 함. 현재는 오사카 내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 · 류○○(여): 27 세. 효소현 아시야시 출생 및 성장. 지역의 공립학교를 다님. 민족교육의 경험은 없으나, 민족학교에 다니던 사촌들에게 과외 형식으로 한글 및 우리말을 학습함. 대학에
--	---

	<p>진학하여 재일 코리안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찾던 중 교토지역 재일코리안 단체와 만났고, 이 단체의 학습회 등을 통해 한반도와 재일 코리안의 역사를 연구하게 됨. 식민지 시기의 역사를 테마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오사카 시내에서 민족강사로 재직 중.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는 공간으로서 민족학급의 의의를 평가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 민족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으나 고등학교 재학 중 일본인 담임교사의 권유로 본명을 사용하게 됨. 이후 이쿠노구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에 속하여 전통 문화를 탐구. 동 단체의 추천으로 민족강사 활동을 시작. 무급에 가까운 급료에도 다수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근무, 후에는 민족학급 설치교를 늘리고 공립학교 내 민족교육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 현재는 히가시 오사카 시내에 학교에서 상근 민족 강사로 근무 중. · 김○○(남): 히가시나리구에서 출생 및 성장.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조총련계 민족학교에서 수학. 이후 오사카 내 미술 대학에 진학하여 교사자격을 취득. 대학 졸업 이후 조총련계 민족학교에서 미술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동료의 소개로 시간강사로서 민족강사 겸임. 현재는 오사카 내 공립학교에서 상근 민족강사로서 재직 중. 일본의 공립 교육 속에서도 재일 코리안의 민족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중.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상의 문제로 “심포지움 계획: 약동하는 재일코리안-경험자에게 듣는 민족학급” 개최는 취소 됨 ■ 녹취록의 내용을 취합하고, 형식을 정리하여 녹취록집 발간 예정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작성하여도 무방함

※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 요망